

# 역사와 현상 모티브...관객에 문화향유 기회 폭넓게 제공



한호&장성민 작 'Space 0'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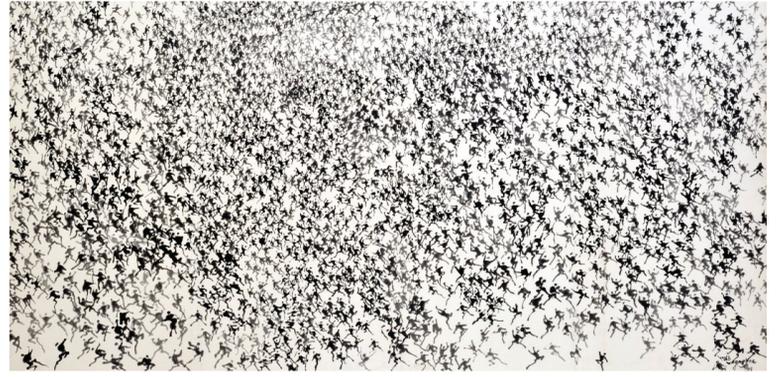
‘한국근현대미술 명화전’, ‘무등에서 영산으로’, ‘오월문화와 미술’ 전, ‘우주의 언어: 수’ 전 등... 광주시립미술관(관장 김준기)은 올해 역사와 현상을 잇는 다채로운 기획전을 비롯해 비엔날레기념전, 광주파빌리온 등을 개최한다. 미술관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주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미술관은 역사와 현상을 모티브로 한 의미있는 전시를 통해 관객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올해 아시아예술정원 조성으로 생태미술관 확장 계획을 마련하는 등 매력적인 복합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올해는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주제로 한 기획전으로 막을 열었다. ‘박소빈: 용의 부활, 무한한 사랑’이 오는 3월 24일까지 진행된다. 박 작가는 동양미학, 불교사상 같은 이상적 세계관을 용에 투영

해 비룡의 스미만인 아닌 사유의 깊이까지 담보해 낸 작품을 선보인다. 남도의 봄을 맞아 광주전남의 풍경을 소재로 하는 ‘무등에서 영산으로’는 오는 3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열린다. ‘수학’을 모티브로 한 이색적인 전시도 예정돼 있다. 현대미술기획전으로 마련한 ‘우주의 언어: 수’(6월5일-8월15일)는 수학을 일상에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수학이론을 바탕으로 한 작품연구 및 아카이브 자료를 구축하고 이를 매개로 관객들에게 수학의 의미와 인식을 전환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등에서 영산까지’는 ‘혼자 말고 향구네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전라도가 낳은 미술작품들을 선보인다. 남도의 삶과 사유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자연자원을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는 기회다. ‘오월 문화와 미술’ 전, ‘오월미술 아카이브전’은

## 광주시립미술관 사업계획 발표

남도의 봄 ‘무등에서 영산으로’ 전  
오월의 송고함 ‘오월문화와 미술’ 전  
현대미술기획전 ‘우주의 언어: 수’  
기관협력 ‘한국근현대미술 명화전’  
비엔날레기념전·파빌리온 등 개최

오는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펼쳐진다. 이번 전시는 미술과 문학을 연계한 전시로 추진돼 시대의 격동과 오월의 송고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5·18광주민주화 운동과 민중미술 관련해 광주 오월정신이 어떻게 예술로 승화되었는지 보여 주며, 부대행사로 오월평화예술대회도 마련된다. 국내외기관협력전 ‘한국 근현대미술 명화전’(6월8일-8월15일)도 개최될 예정이다. 가나아트 컬렉션 중 20세기 초 국내외 사회정치적 갈등과 혼란의 상황 속에서 뛰어난 창작 활동을 펼친 작가 50여 명을 만날 수 있다. 김환기를 비롯해 박수근, 구본웅, 박생광, 이인성, 나혜석, 천경자, 오지호 등의 작품 100여 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2024 광주비엔날레를 기념해 ‘동학’을 주제로 본관 광주비엔날레기념전 ‘시천여민待天賦民’(9월3일-12월1일)을 개최하며 이 기간 본관 2-3층, 제3-6전시실에서는 광주비엔날레 광주



이응노 작 '군상'

파빌리온이 진행된다. ‘한국화 거장1: 이응노’(12월17일-2025.2월23일)를 마련해 이응노 작가의 작품을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확인할 예정이다.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육적 체험형 전시도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1970년대 한국 실험미술의 대표작인 이경용 작가의 작업을 체험할 수 있는 ‘이경용: 다섯 걸음’, 가족 동반 관람객이 감상과 체험을 매개로 미술세계를 넓어지도록 접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전’도 진행된다. 하정웅미술관은 2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 디아스포라작가전으로 재일작가 ‘김석출’전을 개최한다. 전시는 소장품인 하정웅컬렉션 ‘광주 5월’ 시리즈 이외에 ‘유관순’ 시리즈 등 조국과 민족을 주제로 한 작품 등 김석출 회화의 전모를 살필 수 있도록 구성된다.

아시아예술정원 조성으로 생태미술관 확장 계획도 마련된다. 아시아예술정원조성사업이 올해 목표대로 완공되면 아시아 경관을 테마로 한 문화정원, 어린이들을 위한 아시아생태예술놀이 정원 등 생태미술관으로 확장이 기대된다. 아울러 미술관은 중외공원에 ‘아시아 디지털가든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완료되면 정원과 디지털가든을 융합해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준기 관장은 “지나해에는 미술도시 광주민관협치회의 출범 및 상생협약식을 개최해 미술도시 광주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며 “2024년에는 본관 기획전 8회 등을 비롯해 다수의 기획전, 디아스포라 연구,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육, 체험 위주 콘텐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유행한 ‘스윙보컬재즈’ 복고풍 매력 느껴볼까

‘골든스윙밴드와 Swing~을’

20일 광주공연마루서 특별공연

때론 재즈곡 ‘L-O-V-E’로 60-70년대 재즈계를 주름잡던 닉 킹 콜의 스탠더드 재즈처럼, 또 때론 오스카 피터스트리오와 엘라 피트제랄드의 미려한 협연처럼... 유행한 스윙보컬 재즈의 다양한 매력을 선사하는 팀이 광주를 찾는다. 재즈의 황금기를 추억하고 이를 복고풍으로 다시 기억하는 취지에서 결성한 ‘골든스윙밴드’가 ‘골든스윙밴드와 Swing~을’이라는 주제로 신년특별 공연을 펼친다. 오는 20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서구 상무사민로3). 공연의 막은 ‘September In The Rain’으로 열린다. 1937년 발매돼 재즈의 스탠더드로 자리매김한 미디엄 스윙 곡이다. 산뜻하고 낭만적인 멜로디가 돋보이는 ‘Tea For Two’를 비롯해 ‘How Sentimental Reasons’도 들을 수 있다. 미국의 66년 곡도를 가르는 기분을 주는 경쾌한 블루스곡 ‘Route 66’, 빠른 템포에 밝은 분위기로 많은 커버곡을 낳은 ‘Cheek To Cheek’도 올려 퍼진다. 변형이 작곡하고 양중해가 작사한 ‘떠나가는 배’



골든스윙밴드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를 블루지한 재즈 편곡으로, 패티김의 ‘조우’를 리드 패턴의 재즈곡으로 각색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곁들여진다. 보컬은 골든스윙밴드 소속으로 동아방송예대에서 보컬을 전공했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아트트리플러, 자라섬 국제 재즈페스티벌 등에서 활동해 온 김민희가 맡는다. 기타는 정준영, 피아노는 최연주 등이 연주할 예정이다.

광주상설공연 백영경 기획담당자는 “드라마 ‘영그림’ OST 등을 부르면서 알려진 골든스윙밴드는 유행한 스윙 보컬 재즈를 특징으로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주는 팀이다”며 “이번 공연이 각종 페스티벌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밴드를 광주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전석 무료.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구상과 추상, 우연과 필연의 경계는

조주남 작가 추상화 초대전

2월13일까지 생각상자갤러리

구상과 추상의 경계는 무엇일까. 어디부터 구상이고 어디부터 추상일까. 이와 유사한 질문은 회화에서 뿐 아니라 삶에서도 찾을 수 있다. 어디까지고 우연이고, 필연은 어디서부터인가. 조주남 작가는 대학시절부터 추상 실험을 좋아했다. 그는 “안료가 화면에서 번지고 우연히 색이 섞이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감성을 느꼈다”며 “더러 스프레이를 뿌려 나선형의 그림자들이 화면에 나타나는 장면은 창작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에 불을 지폈다”고 한다. 조주남 작가의 추상화 초대전이 생각상자갤러리(관장 주홍)에서 열린다. 오는 2월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우연과 필연’. 이번 전시는 35년 간 추상작업을 해왔던 작가의 창작인생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다. 사실 구상과 추상을 가르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추상화는 관객의 시선과 접하는 순간 구상화로 전이된다. 관람자가 자신의 심미안으로 작품을 보는 시점에서 미묘한 융합적 에너지가 생성된다. 관람객은 자신만의 사유와 미적 감각으로 그림을 보고 해석함으로써 그림은 존재의 이유를 획득하게 된다. 마치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는 것과 맞물리는 지점이다. 조 작가의 작품은 밤하늘 멀리 아득히 펼쳐진 우주의 한 단면을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로테스크한 무늬들이 펼쳐지는 무정형의 이미지들은 무한한 상상의 나라를 띄게 한다. 보는 이에 따라



‘사유공간’

그것은 우주가 되기도 하고 꿈에서 봤던 알 수 없는 장면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우연 같지만, 필연이 되는 어찌면 ‘필’이 꽃히는 순간으로 수렴된다. 마치 우리 삶의 다채로운 모습이 사실은 사소한 인연들과 전혀 인과성 없는 고리들이 맞물려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이다. 주홍 관장은 “청룡의 해를 맞아 추상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지상의 길을 찾듯이 조주남 작가의 ‘우연과 필연 사이’는 그런 모티브를 주지 않을까 싶다”며 “이번 전시를 매개로 삶을 돌아보고 사유함으로써 올 한해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국내의 유수의 문학상 수상작품 전시로 만난다

서구공공도서관 ‘복슬랭-북큐레이션’

노벨 문학상, 볼로냐상, 카네기상 등... 해외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책들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광주 서구공공도서관은 매일 이색적인 주제로 ‘복슬랭-북큐레이션’을 진행한다. 독자에게 맞춤형 책을 추천해주는 일을 북큐레이션이라 한다. 연령이나 취향에 따라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좋은지 조언을 해주는 일이다. 또는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우수한 책이나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을 전시하는 것도 북큐레이션에 해당한다. 서구공공도서관은 올 상반기 국내외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노벨 문학상을 비롯해 볼로냐상, 카네기상 등 해외 문학상 수상작품들과 한국문학상, 장비문학상, 문학동네문학상 등 국내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까지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인문강연과 함께 인문학을 모티브로 한 도서 등을 선보인다. 매일 15일부터 말일



광주 서구공공도서관은 올 상반기 북 큐레이션을 진행한다.

(서구공공도서관 제공)

까지 ‘오늘의 종이집기’도 마련해, 도서관 운영시간에 방문하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한주 담당자는 “올해 상반기는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부담없이 도서관과 책을 즐길 수 있

도록 하기 위해 유명한 문학상 수상작품 북큐레이션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도서관 운영시간에는 그림책과 연계된 종이집기도 예정돼 있는 만큼 누구나 다채로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시립발레단 박경숙 예술감독 재위촉

광주예술의전당(전당장 윤영문)은 광주시립발레단 박경숙(사진) 예술감독을 재위촉했다고 17일 밝혔다. 위촉 기간은 오늘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총 2년. 박경숙 예술감독은 이화여대 무용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교육대학원 체육교육과, 한양대 무용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3년간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로 활동했으며, 광주시립무용단 제2대 단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광주 5·18의 아픔을 안무화 한 컨템포러리 발레 ‘DIVINE’을 선보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밖에도 ‘지젤’, ‘호두까기 인형’, ‘단원 안무전’ 등 다채로운 기획으로 관객들을 만나



왔다. 박경숙 예술감독은 “현재로서 국내에서 유일한 시립발레단인 ‘광주시립발레단’은 여타 발레단과 차별화된 레퍼토리를 개발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올해는 메인 공연으로 희극발레 ‘코펠리아’를 기획 중이고, ‘DIVINE’도 다시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